

정체성과 변화를 어우르다... 나주서 한국화 전시

‘경계의 시선- 다국적 색채展’

28일까지 나주 작은미술관에서
다국적 신진작가 5명·작품 41점
국제 교류 전시도 30일까지 진행
“다양한 문화적 배경 작품 투영”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한국화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나주 작은미술관은 ‘경계의 시선- 다국적 색채’전을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연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된 나주 작은미술관의 첫 전시 ‘흔한 동네 풍경’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 한국화의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의 레마(Letizia Mannucci), 중국의 목예림과 왕샤오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소연, 전민주 등 5명의 신진 작가가 작업한 한국화·회화·설치 등 37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광주 소재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작품 속에 녹여냈으며, 한

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의 전통적인 자연과 일상을 결합해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현했다.

먼저 레마의 작품에서는 종이와 천연 색상의 탐구에서 시작된 기억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들을 상상 속 풍경으로 표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인 ‘익명의 자연’은 이탈리아에서 쌓은 예술적 경험과 한국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맞물려 내면의 고찰을 통한 독창성을 드러낸다.

목예림 작가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작업에 반영했다. 정서적 유대와 가정의 따뜻함을 표현한 ‘부평초와 귀소’ 시리즈는 아이들의 내면 깊은 갈망과 따뜻한 지지가 필요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왕샤오나는 여성과 자연을 주제로 전통적 선과 현대적 색감을 조화시킨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다. ‘치마산’ 시리즈는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치마의 곡선을 자연의 이상적인 경지로 표현해 여성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을 결합했다. 동양철학적 깊이를 담은 수묵화를 통해 자연과 여성의 본질적 관계를 고안했다.

유소연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현대 사회의 고독과 불안을 주제로, 내면의 위안을 찾는 여정이 드러난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난 13일 찾은 나주 작은미술관 1층에 왕샤오나 작가의 ‘산간사몽’이 전시된 모습.

채근하는 현대인의 자화상과 평화로운 외면 아래 내재된 불안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한편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위로받으며 위안을 찾는 여정을 제안한다.

전민주 작가는 ‘자사(自死)’라는 작품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색을 잃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무색의 존재가 타인의 다채로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 전시를 총괄한 김현희 나주 작은미술관 큐레이터는 “한국화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한국적 미감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 작은미술관의 첫 번째 국제 교류 전시인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온 소식들’

도 오는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나주 국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한 폴란드 국적의 필립 르죈키에비치 작가의 제안으로 나주 정미소 작은미술관(읍성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디지털 페인팅, 사진, 회화 등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보내온 학생작품 74점 중 선별된 41점의 작품이 디지털 프린팅을 거쳐 나주 작은미술관의 2층에서 관객을 기다린다.

나주 작은미술관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미술을 배울 때 기교 중심에서 시작해 의미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폴란드의 경우 곧바로 의미 중심에서 출발해 이후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교육이 진행된다”며 “이 때문에 철학적 사상을 녹여놓은 작품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의 시선- 다국적 색채’전과 연계성이 좋다고 판단해 함께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 작은미술관은 인구 11만명의 나주시에 처음 마련된 미술관이다. 기존 나주정미소 4동을 활용해 ‘미술관이 있는 흔한 동네 풍경’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시향,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 V ‘모던’

내달 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20세기 ‘모던주의’ 음악 매력 선포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기획 오티움 콘서트 V ‘모던(Modern)’을 다음달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회에 걸쳐 공연한다.

올해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인 ‘모던’은 20세기 현대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하며, 국내외 유명 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솔리스트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노부스 코르넬트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중인 김재영과 김영욱이 광주시향과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현대음악의 대표 작곡가 ‘베베른’을 시작으로 ‘스트라빈스키’, ‘슈니트케’ 작품의 배경과 곡해설, 오케스트라가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악기 구성의 음악을 선사해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을 연주한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V ‘모던’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

원, A석 1만원. 박찬 기자

ACC, 소설·뮤지컬 복합콘텐츠 공연 연다

‘혼모노’ 낭독공연 개최
23일 문화전당 극장3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9주년을 맞아 ‘ACC 도서낭독공연: 혼모노’를 23일 오후 2시 문화전당 극장3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해나 작가의 단편소설 ‘혼모노’를 뮤지컬 배우의 노래와 연기로 감상할 수 있다. 김길려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3중주 라이브 연주가 펼쳐지며 공연이 끝난 뒤 성 작가가 관객과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소설 ‘혼모노’는 박수무당 문수가 몸주로 모시던 장수 할멈이 신애에게게로 옮겨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무속’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신 앞에 선 인간의 믿음과 불신, 진정성을 질문하는 작품이다.

성 작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에 ‘오즈’가 당선돼 데뷔했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북토크 후에는 성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되며, 관객 10명을 추첨해 사인본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영화 한 편, 토론 한 판’ 참여형 찬반 토론회 성료

지난 2일·9일 동구 미로극장에서
도덕적 딜레마·AI 공존 등 주제
패널과 청중 다양한 시각 공유

참여형 찬반 토론회 ‘영화 한 편, 토론 한 판’이 지난 2일과 9일 광주 동구 미로극장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 상황에서 피난민 수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AI 기술로 죽은 이를 복원해 그리움을 달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원더랜드’를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 8명을 중심으로 한 찬반 토론과 함께 청중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개인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는가’와 ‘현재 이 사회에서 원더랜드 서비스와 같은 AI 복원 기술이 정말 필요한가’ 등의 논제가 오픈 카톡방을 통해 제시됐다.

이번 행사에는 KBS 대하드라마 ‘장영



지난 9일 광주 동구 미로극장에서 열린 ‘영화 한 편, 토론 한 판’에서 패널들이 오픈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 청중의 의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 미로센터 제공

실’과 MBC 드라마 ‘계백’ 등 사극을 주로 집필한 마창준 작가,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장광균 감독, 광주 독서모임 ‘논스탑’, 전년대 영화 비평 동아리 ‘시퀀스’, 청년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양소리 기획자는 “옹고 그림이 없는 다

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목표로 했는데, 영화가 주는 여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영화를 감상하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관계자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 ‘Home’

내달 1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Focus)가 다음달 18일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의 공연 ‘Home’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포커스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만남을 주선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니 구가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그는 클래식, 재즈, 팝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독보적인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다.

그는 JTBC ‘슈퍼밴드 2’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감성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이라는 평을 받았고 최근 클래식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진솔한 일상이 대중에게 공개되

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클래식, 재즈, 그리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들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한 곡들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출연은 바이올린 대니 구와 함께 오랜 음악적 파트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드러머 석다연, 베이스리스트 선 펜트랜드 등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할 수 있다. 티켓오픈은 전당 유료회원 선 예매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먼저 열리며 일반회원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박찬 기자